

서울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38-4 ☎ 02-2264-0751 <http://www.wonsoon.com>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위한 시민 모임 후보 모두발언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시장이 된지 2년 8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동물보호에 관해서 조치를 취했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체인 에코트리, 사람이 동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의 동물, 곤충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있는데, 벌이 사라진 화분의 수정이 불가능 해지고 그러면 모든 식물에 멸종이 일어나고 결국 인간도 생존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시장이 되기 전부터 멸종 위기 종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자고 생각을 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직무 정지되기 전에 종 다양성에 관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을 만들어 보라 했었다. 물론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를 갔을 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하나마다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심지어 동경에서 시립임대주택 단지 만들 때에도 바람 길이 라든지 야생동물 이동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 있었다. 오늘 제안해주신 공약들을 여기서 이걸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재임 중에 청책토론회라 그래서 주신말씀이 있다. 9가지로 요약한 시민제안,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으고 있는 아이디어들,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늘 믿는다.

동물이 행복한,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반려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행복한 도시는 사람도 행복한 도시라 생각한다. 예산사정 때문에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자세한 것은 만약 제가 다시 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모임을 한 번 더 해서 주신 것들을 검토한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상의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5년, 10년 전만해도 이런 단체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여러분은 동물보호에 대한 아젠다를 끊임 없이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행정, 지방정부에 요청함으로써 하나씩 현실이 되어간다 생각한다.

제돌이(돌고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돌이도 처음부터 바다로 돌려보낼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요구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하신 많은 아젠다 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울시를, 지방정부를 통해서 현실이 되갈 것이라 믿는다. 오늘 귀한 모임 만들어주셔서 특히,

걱려패 까지 주셔서 계속 여러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